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

<목 차>

○ 종합보고서 요약	3
○ 배경	5
○ 모니터링 평가 내용	5
○ 모니터링 결과	6
○ 결론	21
○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23

■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 보고서 작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

■ 담당 : 염대형 정책홍보국장(331-0092/010-8692-2258)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

- 내용 없는 질의는 이제 그만, 개선과 대안 요구를 위한 질의가 필요하다!
-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비공개하는 시와 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
-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정기현 의원!

■ 종합보고서 요약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지역의 전문가, 학자, 기자, 시의원 등과 토론 및 면담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지난해 7월 개원한 제8대 시의회의 2018년 활동을 모니터링 했다.

의정 활동 평가는 자치입법 능력, 주민대표 능력, 집행감시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 자치입법과 주민대표 능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직접 정보공개한 자료와 홈페이지 기록물을 근거로 측정했고, 집행감시 능력은 시의회 홈페이지 영상 회의록과 전차 회의록을 기반으로 모니터링했다.

1.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조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했다. 권중순, 박혜련 의원이 각각 2건, 구본환, 김소연, 김찬술, 남진근,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정기현, 채계순, 홍종원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지난 제7대 의회의 1년 차와 비교하면 8대 의회는 14건(제정 8건, 개정 6건)으로 7대 의회 20건(제정 11건, 개정 9건)보다 6건 적지만 비교시기가 짧아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 다만 7대 의회보다는 8대 의회의 조례 발의가 의원별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7대 의회의 경우에는, 조례 중 선심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많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선언적인 조례가 다수 있었다. 또한 지방행정의 법무담당 지원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조례의 내용이 충실해지는데, 그렇지 못해 일부 조례의 경우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입안된 제8대 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밀한 평가가 어렵다. 무엇보다 조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광주·부산광역시나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입법평가에 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적정성, 부합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2. 주민대표 평가 지표로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을 살펴봤다.

1) 제8대 시의회 주민의견수렴 활동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22명의 의원 중 13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지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의원별로 보면 오광영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 포함 9회 개최로 가장 많았고, 조성철 의원이 4회, 채계순 의원이 3회로 뒤를 이었다. 구본환, 김소연, 김인식, 민태권, 박혜련, 윤종명, 이종호, 정기현, 홍종원 의원은 각각 1회씩 개최했다.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게 주민의견수렴이다. 의원들은 이점을 숙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또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자신이 주관한 주제와 그 결과가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고 개선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018년 제8대 의회는 238회 임시회부터 240회 정례회까지 100번이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제7대 의회의 경우에는 회기가 거듭될수록 회의 불참율이 높아졌다. 모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있었던 반면 18번까지 회의에 빠진 의원도 있었다.

이번 제8대 의회의 경우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회의에 출석하고 있지만, 명심할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의 출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5분 발언은 본회의 전, 의원이 미리 신청해서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제도로 의제가 된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2월 31일까지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발언에서 다양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의원이 있던 반면, 근거 없이 당위적으로만 발언하는 의원도 있었다.

22명의 의원 중 12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고, 의원별로는 구본환, 손희역 의원이 2건, 김소연, 김인식, 문성원, 오광영, 우승호, 우애자,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 1회씩 발언했다.

이중 구본환 의원의 “원자력 안전 전담부서 필요성”, 문성원 의원의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 등 학생건강을 위한 정책 실현”, 손희역 의원의 “세금낭비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자세 촉구”는 구체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고, 오광영 의원의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노사 관계 구축”과 김소연 의원의 “교원업무 경감 방안” 발언은 대전의 노동 문제를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3. 지난 연말 시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회의록이다. 모니터링

팀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했고, 특히 상임위원회 발언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1) 제238회 임시회를 보면, 의원 대부분 끝까지 파고들어 질의하거나 대안 제시에 대한 요구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선 의원 대부분으로 의회가 구성됐고, 6.13 지방 선거 이후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보인다. 초선 의원 대부분이 업무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의에 나섰다. 238회 임시회에서 가장 돋보였던 의원은 정기현 의원으로 핵심 있는 질의와 내용을 보였다.

2)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의 현장 조사가 많아졌다. 하지만 질의에는 그 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질의가 많지 않았고, 내용이 빈약했다. 집행부의 경우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의회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질의가 돼야 하는데, 사업 확인 수준에 머물거나 잘하라는 당부가 많았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는 건 좋으나, 대전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선제돼야 했다.

3)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점은 질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회기 내에 확인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다. 사전에 피감기관의 사업 내용을 숙지해 회의에서는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시의원’의 역할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이제 업무파악 시간은 지났다. 의원으로써의 전문성을 갖추야 할 때다.

4. 2018년 의정 평가에서는 구본환, 김찬술, 문성원, 오광영, 조성철, 홍종원 의원이 내용 있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은 가장 훌륭한 의정 활동을 보인 정기현 의원을 선정했다.

5. 2018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조성철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구본환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문성원 의원

6.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정기현 의원

I. 배경

지난 제7대 시의회(2014~2018)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집행부 견제에 있어 감사로만 끝내는 모습, 같은 사안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 일부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와 특정 민원에 편중된 활동은 여전한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회 모니터링팀(이하 모니터링팀)”은 제8대 시의회의 2018년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II. 진행 경과

2018년 3월부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지역의 전문가, 학자, 기자, 시의원 등과 토론 및 면담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링팀을 모집하여 7월에 구성을 마쳤다.

지난 2018년 7월 2일 시의회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시의회에는 공문을 통해 모니터링 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모니터링팀은 238~240회 임시회 및 정례회를 모니터링 했다.

■ 경과 일지

<2018년>

- 1월 ~ 2월 : 시의회 자료 수집,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 3월 13일 : 제1차 시의회 모니터링 사업 논의 → 자료 수집 점검
- 3월 26일 : 제2차 시의회 모니터링 사업 논의 → 집행위원회 논의
- 4월 2일 : 제4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회 개최 → 사업 승인
- 4월 9일 : 제3차 시의회 모니터링 사업 논의 → 모니터링 기준 초안 작성
- 4월 10~30일 : 전문가, 학계, 기자단, 시의원 면담 진행 → 모니터링 기준 점검
- 5월 3일 : 제4차 시의회 모니터링 사업 논의 → 모니터링 초안 완료
- 5월 9일 : 제5차 시의회 모니터링 사업 논의 → 모니터링 세부 기준 점검
- 5월 14일 : 제5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회 → 모니터링 기준 논의
- 6월 1일 : 제1차 시의회 모니터링 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
- 6월 8일 : 제2차 시의회 모니터링 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
- 6월 11일 : 제7대 시의회 활동 내용 정보공개 청구
- 6월 25일 : 대전광역시의회 시민 모니터링팀 모집 공고
- 7월 2일 : 대전광역시의회 모니터링 개시 발표 및 시의회 공문 전달
- 7월 6일 ~ 26일 : 제238회 임시회 모니터링
- 7월 11일 : 제1차 모니터링 모임
- 8월 8일 : 제1차 조례분석 모임
- 8월 21일 : 제2차 모니터링 모임
- 8월 31일 : 제2차 조례분석 모임

- 9월 3일 ~ 21일 : 제239회 정례회 모니터링
- 9월 13일 : 제3차 모니터링 모임
- 10월 25일 : 제4차 모니터링 모임
- 10월 30일 : 제3차 조례분석 모임
- 10월 31일 : 진정한 자치분권을 견인하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발표
- 11월 5일 ~ 12월 14일 : 제240회 정례회 모니터링
- 11월 7일 ~ 16일 : 2018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참여
- 12월 4일 : 대전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 개최
- 12월 27일 : 제5차 모니터링 모임

<2019년>

- 1월 2일 : 2018년 제8대 시의회 활동 내용 정보공개 청구
- 1월 15일 : 제6차 모니터링 모임
- 1월 29일 : 제7차 모니터링 모임
- 2월 11일 : 제8차 모니터링 모임
- 2월 13일 :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활동 평가 종합보고서 발표

III. 모니터링 평가 내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모니터링팀은 시의회의 모니터링 평가 내용으로, 첫째, 시의원들의 자치입법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원들의 조례발의를 근거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횟수를 측정했다.

둘째, 시의원들의 주민대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주민의견수렴 과정(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과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에 대해서 측정했다.

셋째, 시의원들의 집행감시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나눠 평가했다.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표

구분	자치입법	주민대표	집행감시
측정 지표	① 조례 제정 건수 ② 조례 개정 건수	① 주민의견수렴도 ② 회의 출석율 ③ 5분 발언	①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 (회의별 발언, 시정질의, 서면질의 등) ② 행정사무감사
지표 내용	단체장 발의 조례가 아닌 시의원 발의로 처리된 일반행정조례 제·개정 건수와 실효성	① 주민의견수렴 - 간담회 관련(시의원 주관 및 참여) - 토론회 관련(시의원 주관 및 참여) - 공청회 : 참석발의 - 설문조사: 전문기관 의뢰/공유 ② 회의 출석 -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의 출석율 ③ 5분 발언	①~② 집행감시능력을 중점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측정 <전문성> +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가? + 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가?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내 5분 발언에 대해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평가 	<p><구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가? + 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 제시하는가? + 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가? + 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 지적하는가? <p><대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가? +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가? 대전시 전체의 사안인가? 국가 전체의 사안인가? + 대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가?
측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별 조례 건수 정량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수렴 및 회의 출석은 정량 측정 - 5분 발언은 횟수와 더불어 발언 내용은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이 있는지 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감시능력 측정방식은 모니터링팀의 정성 평가

IV.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팀은 위에 언급한 의정활동 평가표에 의거하여 자치입법 능력, 주민대표 능력, 집행감시 능력을 측정했다. 자치입법과 주민대표 능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정보공개한 자료와 시의회 홈페이지 기록물을 근거로 측정했고, 집행감시 능력은 시의회 홈페이지 영상 회의록과 전차 회의록을 기반으로 평가했다.

1. 자치입법 평가

자치입법은 조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시의원의 자치 입법 능력을 대변한다. 특히 조례 입법권은 시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게 그 목적이다.

먼저 지난 제7대 의회(2014. 7월~2018. 6월) 때 시의원의 조례 제·개정수를 보면 총 449건으로 제정은 215건, 개정은 234건으로 나타났다. 1년차(2014년)때의 제·개정 수는 20건(제정 11건, 개정 9건), 2년차(2015년)때는 114건(제정 50건, 개정 64건), 3년차(2016년)때는 106건(제정 59건, 개정 47건), 4년차(2017년)때는 179건(제정 83건, 개정 96건), 5년차(2018년)때는 30건(제정 12건, 개정 18건)이었다. 제7대 의회에서 조례 입안 건수는 의정 활동이 안정될수록 강세를 보였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에 가장 많이 입안되었다.

지난 해, 12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제7대 시의회의 조례를 평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제7대 시의회의 조례 중 선심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많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선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조례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행정의 법무담당 지원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조례의 내용이 충실해지는데, 그렇지 못해 일부 조례의 경우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했다. 대안으로 조례가 자치입법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조례제정과정에서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대전시와 시의회 모두 전문성을 갖기 위해 전문가 과정에 상응한 의원연수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법지원조직을 확대해야만이 지방자치입법권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조례입법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추구하여 조례입법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선언적인 것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¹⁾

<표 2>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명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15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종원 의원 외 8인	운영위원회
154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술 의원 외 7인	운영위원회
13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근 의원 외 11인	산업건설위원회
13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조례안	김소연 의원 외 7인	교육위원회
131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현 의원 외 7인	교육위원회
129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박혜련 의원 외 7인	행정자치위원회
128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우승호 의원 외 7인	산업건설위원회
127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구본환 의원 외 14인	산업건설위원회
74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채계순 의원 외 6인	복지환경위원회
73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손희역 의원 외 5인	복지환경위원회
71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영 의원 외 11인	산업건설위원회
7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중순 의원 외 5인	산업건설위원회
69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권중순 의원 외 6인	행정자치위원회
67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박혜련 의원 외 13인	교육위원회

※ 출처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자료(총무담당관-221)

지난 2018년 7월 9일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발의된 조례 건수는 2018년 12월 현재,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위 <표 2>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 3건,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2건, 복지환경위원회 2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서 즉자적으로 조례의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례가 실행되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1) 제7대 시의회 조례 평가 결과는 『대전광역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충남대학교 법률센터 토론회 자료집, 2018). 참조.

하다.

<표 3> 의원별/회기별 조례 대표 발의 제·개정 수

회기	238		239		240		합계		의원별 제·개정 합계
구분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구분환	0	0	0	0	1	0	1	0	1
권중순	0	0	1	1	0	0	1	1	2
김소연	0	0	0	0	1	0	1	0	1
김인식	0	0	0	0	0	0	0	0	0
김종천	0	0	0	0	0	0	0	0	0
김찬술	0	0	0	0	0	1	0	1	1
남진근	0	0	0	0	0	1	0	1	1
문성원	0	0	0	0	0	0	0	0	0
민태권	0	0	0	0	0	0	0	0	0
박혜련	0	0	1	0	1	0	2	0	2
손희역	0	0	1	0	0	0	1	0	1
오광영	0	0	0	1	0	0	0	1	1
우승호	0	0	0	0	1	0	1	0	1
우애자	0	0	0	0	0	0	0	0	0
윤용대	0	0	0	0	0	0	0	0	0
윤종명	0	0	0	0	0	0	0	0	0
이광복	0	0	0	0	0	0	0	0	0
이종호	0	0	0	0	0	0	0	0	0
정기현	0	0	0	0	0	1	0	1	1
조성철	0	0	0	0	0	0	0	0	0
채계순	0	0	1	0	0	0	1	0	1
홍종원	0	0	0	0	0	1	0	1	1
합계	0	0	4	2	4	4	8	6	14

의원별 조례 제·개정 발의는 22명의 의원 중 12명이 대표 발의했다. 권중순, 박혜련 의원이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분환, 김소연, 김찬술, 남진근,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정기현, 채계순, 홍종원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김인식,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애자,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조성철 의원 등 10명은 1건의 제·개정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표 4> 제7대 의회와 제8대 의회 첫째 조례 비교표

구분	2014		2018	
	제정	개정	제정	개정
건수	11	9	8	6
합계	20		14	

지난 제7대 의회와 같이 1년 차를 비교하면 8대 의회가 14건(제정 8건, 개정 6건)으로 7대 의회 20건(제정 11건, 개정 9건)보다 6건 적지만 비교시기가 짧아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 다만 7대 의회 때보다는 8대 의회에서 조례 건수가 의원별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부산광역시나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입법평가에 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정성, 주민의견 수용성, 조례 지원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대전 현실과의 부합성 등을 담아야 한다. 의회와 대전시는 대전만의 입법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주민대표 평가

주민대표 능력에 대한 지표로 삼은 건 주민의견수렴 활동(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회의 출석율, 5분 발언으로 개인 민원과 특정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는 평가 지표에서 제외했다.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큰 지표고, 5분 발언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기에 회의 출석율은 의원의 기본 성실성을 확인하는 기본 지표다.

1)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표 5> 의원별 주민의견수렴(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내용

의원명	주민의견수렴방법	방식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소요예산
오광영	간담회	주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1	0807 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298,000
오광영	간담회	주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2	0821 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377,500
김소연	간담회	주관	월평만지역 정주여건 개선 주민간담회	0831 시의회	월평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모색	972,200
조성철	토론회	주관	대전광역시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위한정책토론회	0831 시의회	대전광역시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위한정책방안모색	774,200
오광영	간담회	주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3	0904 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277,500
정기현	토론회	주관	대전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0905 시교육청	대전교육 발전방안 모색	1,257,300
채계순	간담회	주관	대전시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조직개선방안정책간담회	0905 시의회	대전시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조직개선방안모색	776,600
이종호	토론회	주관	대전 대표음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0914 시의회	대전 대표음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모색	1,070,400
오광영	간담회	주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4	0918 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277,500
조성철	토론회	주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004 시의회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778,000
남진근	간담회	주관	지역균형발전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1004 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211,500
오광영	간담회	주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5	1005 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200,000
채계순	간담회	주관	대전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강화방안정책간담회	1010 시의회	대전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강화방안모색	675,700
오광영	간담회	주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6	1019 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265,500

김인식	간담회	주관	교육공무원의 교육감직공과 위안부 조정을 위한 간담회	1023 시의회	교육공무원의 교육감직공과 위안부 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	176,400
윤종명	간담회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양중학교 하부시장 조성 정책 간담회	1024 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양중학교 하부시장 조성 방안 모색	373,600
박혜련	토론회	주관	대전의 행정개혁, 다산에게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	1030 시의회	대전의 행정개혁, 다산에게 길을 묻다 정책방안 모색	1,944,100
오광영	토론회	주관	대덕연구단지 기반으 한 혁신과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	1106 시의회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285,300
오광영	간담회	주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방안 정책간담회	1120 시의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방안 모색	262,000
구본환	간담회	주관	전통시장 전문이용생태설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1128 시의회	전통시장 전문이용생태설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방안 모색	476,500
오광영	토론회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토론회	1204 시의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방안 모색	264,800
채계순	토론회	주관	대전의료원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	1214 시의회	대전의료원 설립방안 정책 방안 모색	1,573,600
조성철	토론회	주관	청년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워크숍 정책토론회	1217 시의회	청년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312,000
조성철	토론회	주관	공익적 시민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1219 시의회	공익적 시민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75,000
민태권	간담회	주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1226 시의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176,500
홍종원	간담회	주관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 정책간담회	1227 시의회	통학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 정책방안 모색	175,200

※ 출처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자료(총무담당관-221)

<표 5>처럼 제8대 시의회 주민의견수렴 활동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의제별로 보면 의회 운영 관련 6건, 지역 의제 관련 4건, 교육(교육청) 관련 4건, 민주시민교육 및 공익적 시민 활동 3건, 지역 경제 관련 2건, 문화 관련 2건, 의료, 행정, 청년 관련 의제는 각각 1건을 기록했다.

<표 6> 의원별 주민의견수렴 개최 수

구분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합계
구본환	1	0	0	0	1
권중순	0	0	0	0	0
김소연	1	0	0	0	1
김인식	1	0	0	0	1
김종천	0	0	0	0	0
김찬술	0	0	0	0	0
남진근	1	0	0	0	1
문성원	0	0	0	0	0
민태권	1	0	0	0	1
박혜련	0	1	0	0	1
손희역	0	0	0	0	0
오광영	7	2	0	0	9
우승호	0	0	0	0	0
우애자	0	0	0	0	0
윤용대	0	0	0	0	0

윤종명	1	0	0	0	1
이광복	0	0	0	0	0
이종호	0	1	0	0	1
정기현	0	1	0	0	1
조성철	0	4	0	0	4
채계순	2	1	0	0	3
홍종원	1	0	0	0	1
합계	16	10	0	0	26

<표 6>처럼 22명의 의원 중 13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지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의원별로 보면 오광영 의원이 간담회와 토론회 포함 9회 개최로 가장 많았고, 조성철 의원이 4회, 채계순 의원이 3회로 뒤를 이었다. 구본환, 김소연, 김인식, 민태권, 박혜련, 윤종명, 이종호, 정기현, 홍종원 의원은 각각 1회씩 개최했다. 반면 권중순, 김종천, 김찬술, 문성원, 손희역, 우승호, 우애자, 윤용대, 이광복 의원은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게 주민의견수렴이다. 의원들은 이점을 숙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또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자신이 주관한 주제와 그 결과가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고 개선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없는 점은 아쉽다. 2019년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과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

2) 회의 출석율

시의회 회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2018년 238회 임시회부터 240회 정례회까지 100회가 넘는 회의가 개최됐다.

<표 7> 2018년 시의회 회의 불참 의원과 사유

위원회별	이름	기 간	사 유
교육위원회	문성원	2018.7.10(1일)	신임의장단 언론사 방문
산업건설위원회	윤용대	2018.7.10(1일)	신임의장단 언론사 방문
교육위원회	우애자	2018.11.7.~ 9, 11.12.(4일)	시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애자	2018.12.4(1일)	신병 치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철	2018.12.10. ~12.12.(3일)	입원
운영위원회	이종호	2018.12.14(1일)	복지환경위원회 긴급회의 참석
운영위원회	손희역	2018.12.14(1일)	복지환경위원회 긴급회의 참석

※ 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공문(의사담당관-252)

지난 제7대 의회의 경우에는 회기가 거듭될수록 회의 불참율이 높아졌던 걸로 나

나타났다. 모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있었던 반면 18번까지 회의에 빠진 의원도 있었다.

이번 제8대 의회의 경우 지금까지는 양호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명심할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의 출석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할 점은 의회 사무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월 2일 2018년 <8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답변 자료 확인 중, 의회 사무처가 제공한 시의원 회의출석 현황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출석명부 조사 결과가 달랐다. 확인 결과, 의회 사무처에서는 ‘자료 작성을 부정확하게 해서 정보공개자료에 불참 사항이 누락됐다’고 답변했다. 이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행정 착오다. 차기에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3) 5분 발언

의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발언이 있다. 이 중에서 5분 발언은 본회의 전에 의원이 미리 신청해서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제도로, 의제가 된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표 8> 5분 자유발언 및 처리 결과 현황

회기	의원명	5분 자유발언 내용	건수	조치 결과
제238회 (임시회)	구본환	구즉동 환경오염 해소방안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관련 조례제정 추진	1	추진 중
	윤용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및 유망기업 유치 지원 시스템 구축	1	추진 중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구본환	원자력 안전 전담부서 필요성	1	추진 중
	이광복	방학중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	1	추진 중
	우승호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 방안	1	추진 중
	김인식	청년정책과 ‘청년구단’ 프로젝트 실효성 점검 필요성	1	완료 (청년취업 희망카드 등 9개의 주요정책 추진)
	오광영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노사 관계 구축	1	추진 중
	윤종명	합리적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 방안	1	추진 중
	손희역	대덕구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	1	완료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교부로 자치구간 균형재정 운용)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문성원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 등 학생건강을 위한 정책 실현	1	추진 중
	우애자	21세기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대전을 위한 제언	1	추진 중
	김소연	교원업무 경감 방안	1	추진 중
	이종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1	추진 중
	손희역	세금납비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자세 촉구	1	추진 중

※ 출처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자료(총무담당관-221)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2월 31일까지 총 14건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의원 소속 위원회나 자기 지역구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발언이 다수였다. 이 중 경제 분야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안전, 교육 분야가 각 2건, 복지, 문화, 행정 분야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의원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5분 발언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며, 담당 기관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5분 발언 중 구본환 의원의 “원자력 안전 전담부서 필요성”, 문성원 의원의 “학교 체육관 공기질 관리 등 학생건강을 위한 정책 실현”, 손희역 의원의 “세금낭비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자세 촉구”는 구체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고, 오광영 의원의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노사 관계 구축”과 김소연 의원의 “교원업무 경감 방안” 발언은 대전의 노동 문제를 환기시키는 발언이었다.

<표 9> 의원별 5분 발언 건수

구분	238	239	240	합계
구본환	1	1	0	2
권중순	0	0	0	0
김소연	0	0	1	1
김인식	0	1	0	1
김종천	0	0	0	0
김찬술	0	0	0	0
남진근	0	0	0	0
문성원	0	0	1	1
민태권	0	0	0	0
박혜련	0	0	0	0
손희역	0	1	1	2
오광영	0	1	0	1
우승호	0	1	0	1
우애자	0	0	1	1
윤용대	1	0	0	1
윤종명	0	1	0	1
이광복	0	1	0	1
이종호	0	0	1	1
정기현	0	0	0	0
조성철	0	0	0	0
채계순	0	0	0	0
홍중원	0	0	0	0
합계	2	7	5	14

22명의 의원 중 12명의 의원이 5분 발언했고, 구본환, 손희역 의원이 각각 2건, 김소연, 김인식, 문성원, 오광영, 우승호, 우애자,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1회씩 발언했다.

<표 10> 제7대 의회와 제8대 의회 첫해 5분 발언 건수 비교표

구분	2014	2018
합계	5	14

지난 제7대 의회 때 발언된 5분 발언 횟수는 총 125회로 1년차(2014년)때는 5건, 2년차(2015년)때는 26건, 3년차(2016년)때는 46건, 4년차(2017년)때는 41건, 5년차(2018년)때는 7건이었다. 3년차를 정점으로 점점 하향세를 그렸다.

8대 의회 1년차와 7대 의회 1년차를 비교하면, 8대 의회는 14건으로 7대 의회보다 9건이 많았다. 또한 의원들 발언 또한 7대 의회보다 고르게 분포됐다.

3. 집행감시 평가

지난 해 12월 18일 시의회 보도자료에서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견제와 감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회의록이다. 모니터링팀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했고, 특히 상임위원회 발언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1) 제238회 임시회 평가

모든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끝까지 파고들어 질의하거나 대안 제시에 대한 요구가 보이지 않았다. 8대 의회가 다수의 초선 의원으로 구성됐고, 시간적인 한계로 인한 준비 부족으로 보인다.

초선 의원 대부분이 업무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의에 나섰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내용을 확인하거나, 질타하는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기현 의원은 238회 임시회에는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3차 예산위원회에서 대전시가 추경예산을 일방적으로 수립한 데 대한 질타는 행정편의주의의 폐단을 정확하게 지적한 우수한 질의였다.

① 행정자치위원회

대개 위원장의 경우, 질의보다는 회의 운영에 힘쓰는데 첫 회기인 관계로 박혜련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혜련 의원(위원장)의 질의에는 전문성과 구체성이 높았다. 남진근 의원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설명해달라는 발언이 많았고, 피감기관에 대한 반말과 욕박지르기는 의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민태권 의원과 홍종원 의원은 원론적인 질의에 머물렀다. 조성칠 의원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었지만, 간혹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

② 복지환경위원회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 전체 관점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질의했고, 현장 조사 또한 우수해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손희역 의원과 윤종명 의원은 원론적이고 확인하는 질의에 머물렀다. 채계순 의원은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전

문성이 더 필요하다.

③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의원의 경우 전문성과 구체성은 보였지만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발언이 많았다. 김찬술 의원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보였다. 오광영의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전 시민 입장에서 질의하려고 노력했다. 우승호 의원은 소수 의견을 대변한 질의가 많았다. 윤용대 의원은 경제 분야 질의가 많았고, 자료 요구가 빈번했다.

④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위원장)은 전문성과 구체성이 높아 발언에서 근거 제시와 대안 요구가 분명했다. 김소연 의원, 문성원 의원, 우애자 의원 모두 사실을 확인하거나 원론적인 질의에 머물렀다. 김인식 의원은 전문성과 구체성은 우수했지만, 대표성이 부족했다.

<238회 우수 질의>

－ 정기현 의원(20180723 제3차 예결산위원회, 20~23쪽) : 대전시가 추경예산을 일방적으로 수립한 데 대한 질타는 행정편의주의의 폐단을 정확하게 지적

<238회 문제 발언>

－ 남진근 의원(20180724 제4차 예결산위원회, 40~41쪽) : 조사와 논리 없이 뜬금없는 지하철 1호선 연장 언급. 여기에 해당 소관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도시철도 소관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원문]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식장산 문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에 동구 부구청장이 저희에게 방문해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고요. 동구에서 식장산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진입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식장산에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지금 1호선 지하철을 조금 연장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민들 접근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장산 입구까지 지하철 연장?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하철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남진근 위원 그런 교통편의가 어떨겠느냐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니, 연장하면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편리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2)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평가

지난 238차 임시회에 비해 의원들의 현장 조사가 많아졌다. 하지만 질의에는 그 내용을 풍부하게 담지 못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질의가 많지 않았고, 빈약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다는 점이다.

- 239회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강력하게 나왔던 지적 사항 → 시청과 교육청의 자료 제출 불성실 문제.

+ 9월 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36~37쪽)에서 박혜련 위원장 또한 집행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

+ 9월 7일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1~2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전시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해서 경고하기에 이른다.

+ 9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회의록 18쪽)에서도 김찬출 의원 또한 교육청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불성실한 답변을 질타했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한 질의가 많지 않았고, 대안 제시 또한 부족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는 건 좋지만, 대전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선재돼야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이후 개최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전 상임위원회의 질의와 지적 사항을 숙지하고 들어와 중복질의를 지양해야 하는데, 중복 질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했다.

①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원론적인 확인 질문에 그쳤고, 개선과 대안 요구보다는 당부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민태권 의원 역시 원론적인 질의에 머물렀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조성철 의원은 대전시 전체보다는 문화 쪽에 치중된 질의가 많았다. 내용에 대한 핵심은 있지만, 대표성이 더 필요하다. 홍종원 의원은 질의 내용이 논리적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복지환경위원회

구분환 의원은 현장 중심의 내용을 근거로 탁월한 질의를 보였다. 특히 원자력 문제에 대한 논거는 우수했다. 손희역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덕구 관련 질의가 많았다. 대덕구 문제라 하더라도 대전시 전체로 확산시켜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 윤종명 의원은 원론적인 질의에 머물렀다. 채계순 의원은 논리적인 질의를 하지만,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③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의원은 확인 수준의 질의가 대부분이고, 자기 주장이 많았다. 김찬술 의원의 질의는 구체적이고 대전시민 입장에서 행정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을 이끌어낸

다. 오광영 의원의 행정 성과의 부풀리기에 대한 분석과 질타는 우수했다. 하지만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우승호 의원은 소규모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했는데, 산건위 주요 사안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윤용대 의원은 질의 대부분을 자료 요청으로 채웠다. 소관 부서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문서 요구가 빈번했다.

④ 교육위원회

김소연 의원과 김인식 의원 모두 원론적인 질의가 많았다. 확인 질의보다는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질의가 더욱 필요하다. 문성원 의원은 구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교육청 소송과 이문고 예산 낭비 사례에 적절히 지적했고, 내용은 우수했다. 우애자 의원은 단순 질의조차도 거의 없었다.

<239회 우수 질의>

- 조성칠 의원(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18쪽) : "소방본부 불용액과 이월금액 과다에 지적"은 불용액에 대한 우수 질의
- 오광영 의원(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32쪽~) : 시의 행정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논리적인 지적.
- 김찬술 의원(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26쪽~) :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에 관한 질의는 시민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한 우수 질의
- 구본환 의원(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25쪽~) : "산업단지 악취관리"에 대해서 탁월한 현장 조사와 대안 제시를 보여줌.
- 문성원 의원(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록 5쪽)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의 교육청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
- 문성원 의원(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록 10쪽) : "대전 이문고 체육관 주차장 앞 석축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

3)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평가(임시 회의록 기준)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점은 미리 질의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회기 내에 확인하는 모습이 많다는 점이다. 사전에 피감기관의 사업 내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회의에서는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여전히 자신의 역할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이제는 업무과악의 시간은 지났다. 의원으로써의 전문성을 갖춰야 할 때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와는 달라야 한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낭비가 없는지 점검하고,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 내용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① 행정자치위원회

남진근 의원과 민태권 의원은 원론적이고 확인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조성칠 의원은 분명 문화 분야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야 또한 연구와 전문성이 수반돼야 한다. 홍종원 의원은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다. 꼼꼼한 자료를 조사를 통해 예리한 질의를 보였고, 대안도 제시했다.

② 복지환경위원회

구분환 의원은 238, 239회에서 보여줬던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 요구가 무뎠다. 자료조사는 풍부했고, 문제 인식은 좋으나 집행부의 개선과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손희역 의원과 윤종명 의원은 확인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사전 조사와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채계순 의원은 여전히 다양한 주제의 질의를 펼쳤지만 원론 수준에 그쳤다.

③ 산업건설위원회

권중순 의원은 사전 조사 없는 질문 속에, 다른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반복했다. 김찬술 의원은 질의가 구체적이고 현장 조사가 반영돼 있다. 대전시 전체 입장에서 보편성을 이끌어낸다. 집행부 행정 견제에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 오광영 의원은 조례에 대한 이해가 깊지만 개선 및 대안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용대 의원은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많다. 자료와 근거로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으로 질의하고, 자료 요청이 빈번하다. 우승호 의원은 타시도 사례를 단순 비교 형태로 질의하는데, 대전시 현안에 답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자료 조사가 충실하고, 현장의 이해도가 대단히 높다.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개선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위원장의 역할을 감안해 교육위원회의 질적 향상을 고민해 봐야한다. 김소연 의원과 김인식 의원은 지난 회기와 동일하게 거의 원론적인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질의 양도 많지 않았다. 이에 반해 문성원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했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청 건설소송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을 압박한 건 모범사례 중 하나다. 우애자 의원은 예술 쪽에 치우친 질의가 많지만, 내용에는 구체성이 있었다. 지난 회기에 비해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240회 우수 질의>

－ 조성칠 의원(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41쪽) : “21C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사업 관련 10억 가까이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질타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감시 모습을 보여줌.

- 조성칠 의원(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53~55쪽) : 대전시티즌 방만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개선 요구.

+ 여기에서 주목할 건 피감기관들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 공개법 개인 보호, 기업 영업 비밀 등의 이유를 거론하면 의회에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음. 이는 엄연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하는 행위.

+ 의회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 시와 교육청에 공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구본환 의원(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14~15쪽) : 대전시 위탁 기관 근무자들의 급여 기준에 대해서, 정부 정책만 따를 게 아니라 대전시의 입장도 필요하다고 주문. 이는 현장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우수 질의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질의로만 끝낼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함.

- 김찬술 의원(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9~32쪽) : 자료제출 요청의 모범 사례, 단순 자료요청이 아니라 재가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 실질적이지 못한 일자리 상담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용역의 예산낭비를 밝힘.

- 문성원, 정기현 의원(제1차 교육위원회, 11~16쪽) : 2018년 하반기 예산운용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예산추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요구.

- 문성원 의원(제2차 교육위원회, 23쪽) : 장애인 학교에 대한 현장성, 건강,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고려해 교육청의 기준없는 행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질타.

- 정기현 의원(제3차 교육위원회, 44~49) : 사립학교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부 핑계를 대며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

+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김찬술 의원(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5~6쪽) : 사립학교 직원채용 관련 지도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 및 교육청의 용역과 검토 없이 현 추세에 맞게만 지원하는 걸 잘 지적.

- 오광영 의원(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44쪽) : 무상교복 관련 좋은 질타와 대안 제시. 대전시는 조례와 교육청 협조 관계로 답변을 미룸, 이에 반해 시민참여 플랫폼 정책은 조례없이도 신속히 진행(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18~21쪽 참조). 오광영 의원은 이 부분들을 비교하며 적절히 압박.

- 김찬술 의원(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9쪽) : 용역 관련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

- 정기현 의원(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14쪽) : 시민참여행복위원회 일몰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

- 김인식 의원(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32쪽) : 대전시티즌 관련 우수 질

의

- 김찬술 의원(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42쪽) : 구별 야구장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야구장 건설 관련 대전시의 기준 제시 요구는 적절한 지적.
- 정기현 의원(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18쪽) : 행정회계보조인력 그리고 보육보조교사 지원기준 관련에서 경력단절여성 언급하며, 현실과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여줌. 특히 적절한 대안과 정책 요구

<240회 문제 발언>

- 남진근 위원(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 7~9쪽) : “최중증장애인 강제 입원” 발언. 사회적 약자와 제도에 대한 몰이해의 정도가 심함

[원문]

○남진근 위원 치매환자라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가족들이 누가 한 명이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사회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지금 강제 입원은…….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인권과 관련돼서.
○남진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V. 결론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22명의 의원 중 12명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입안 건수는 권중순, 박혜련 의원이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본환, 김소연, 김찬술, 남진근,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정기현, 채계순, 홍종원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다만 여기에서 즉자적으로 조례의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례가 실행되고 난 후 시간이 지나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광주·부산광역시나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입법평가에 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실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조례 지원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대전 현실과의 부합성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과 5분 발언을 들 수 있다. 22명의 의원 중 13명의 의원이 총 26건의 주민의견 수렴 활동을 펼쳤다. 오광영 의원이 9회 개최로 가장 많았고, 조성칠 의원이 4회, 채계순 의원이 3회로 뒤를 이었다. 구본환, 김소연, 김인식, 민태권, 박혜련, 윤종명, 이종호, 정기현, 홍종원 의원은 각각 1회씩 개최했다.

현재로써는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밀한 평가는 어렵지만, 주민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게 주민의견수렴이다. 의원들은 이점을 숙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활동을 넓혀야 한다.

5분 발언은 구본환, 손희역 의원이 각각 2건, 김소연, 김인식, 문성원, 오광영, 우승호, 우애자,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의원이 각각 1회씩 발언했다.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의원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향후에는 5분 발언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명확한 근거를 담아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기관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활동을 보면 지난 제7대 의회에서와 같이 여전히 지적되는 점들이 있었다.

빈번히 일어난 게 원론이거나 확인하는 질의였다. 집행부에 대한 개선과 대안 요구보다는 당부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성과 구체성으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하거나 대안 제시에 대한 요구가 잘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한정돼 대전시 전체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민원성 질의는 여전했다. 결국 피감기관인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행정의 문제 지적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향후 의원들은 회기 전, 사전에 피감기관의 사업 내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회의에서는 개선과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분명한 건, 회기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여전히 자신의 역할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제8대 의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된 게 집행부의 태도다. 시는 물론 교육청까지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239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시정 요청을 했고, 경고하기까지 이른다.

여기에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문서나 정보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의 개인 보호, 기업 영업 비밀 등의 이유를 거론하면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엄연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회 차원에서 이점을 숙지해 시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 개선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회기가 거듭될수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능력이 향상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구본환, 김찬술, 문성원, 오광영, 조성칠, 홍종원 의원의 의정 활동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정기현 의

원은 2018년 가장 훌륭한 의정 활동을 보여줬다.

대전광역시의회는 2018년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 2019년에는 더욱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발의하고, 지적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야 하며, 결과는 시민에게 공유해야 한다.

중언하건데, 어떠한 권력이든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부패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가 갖는 대전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돼야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모니터링팀은 2019년에도 대전광역시의회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의견개진 하겠다.

VI.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과 올해의 정치인

1. 2018년 각 상임위원회 우수 의원

2018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

- 행정자치위원회 : 조성칠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김찬술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구본환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문성원 의원

2.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 : 정기현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정치인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8년 우수한 의정활동과 교육위원장으로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행을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 내, 2019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이 전면 실행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립학교 폭력 문제 등 지역 현안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기현 의원을 제19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올해의 정치인”으로 선정한다.

시상은 오는 2019년 2월 14일(목) 19시,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